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08호 현대불교
2010년 11월 3일(음 9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말 한마디를 해도 한데 떨어뜨리지 말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저 여러분은 무서운 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화나는 대로 그냥 내뱉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아이, 저놈 급살이라도 맞아야.” 한다든가 “너는 깡통밖에 못 찬다.” 한다든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생각도 없이 말을 해도 그것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귀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 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의 업식들이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병명이 이러니까 우리도 인제는 어찌할 수 없다.” 한다면 “아이구, 인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선고를 그냥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이 되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한테도 “깡통을 차려고 그러느냐? 너,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안 하면 너 항상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막 욕을 해 댔는데,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자식들에게나 부모에게나 부부기간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모두가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대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는 알게 나오기 마련이고 모르고 하는 거는 모르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생각 한번, 행동 한번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를 해도 한데 떨어뜨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잘못됐든 잘못됐던 간에 여러분이 한생각으로서, 잘못되면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거라면 ‘거기서 안된 것이 나온 거니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다.’ 하고 되돌려 놔야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합니다.

부처님 발을 왜 평발이라고 했을까요? 하다 못해 지렁이 발도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지렁이 발이 어딴냐고 하시겠지요? 하여튼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계신 겁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나셨다가 열반하셔서 이제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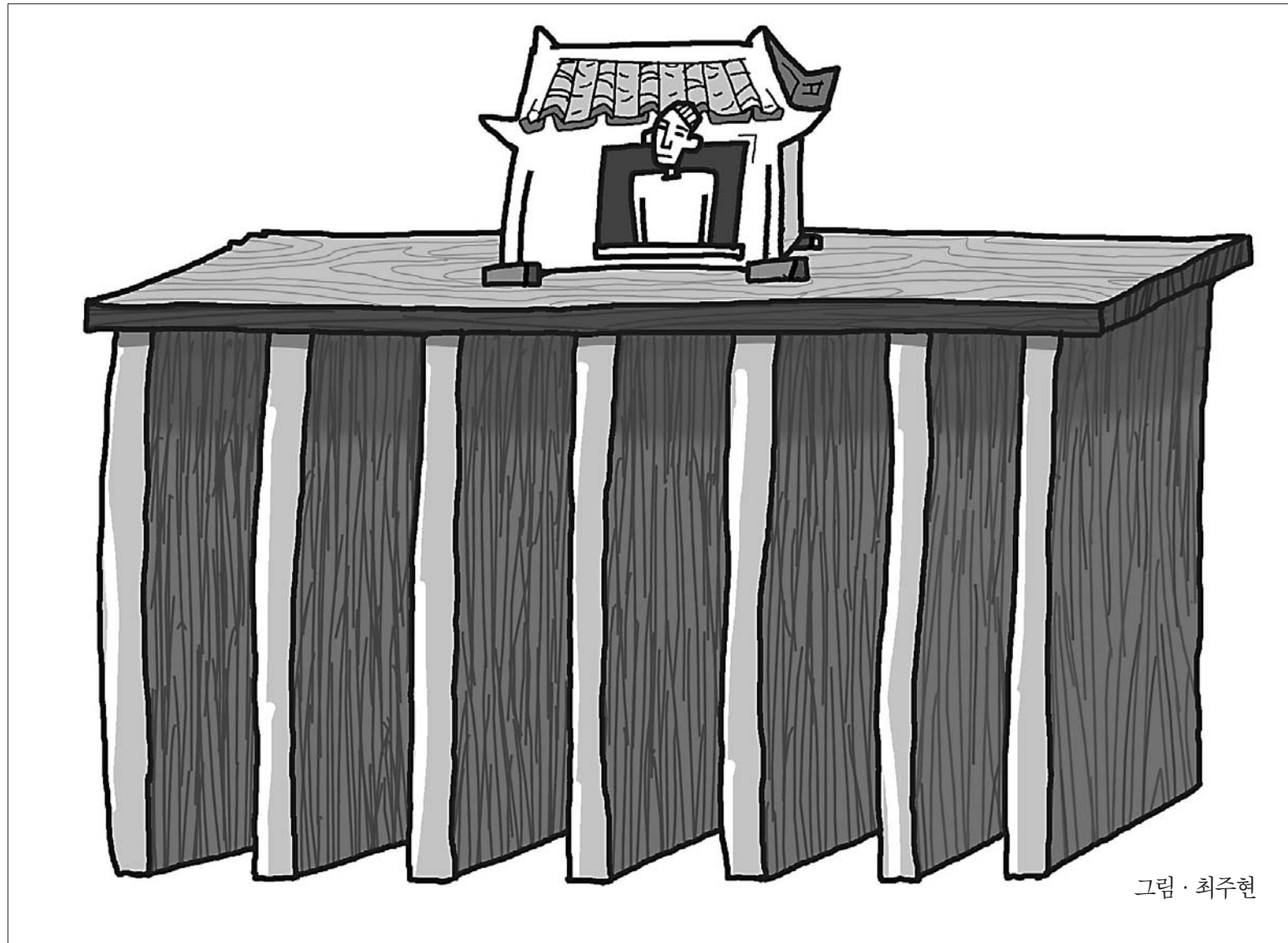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는 한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 거죠. 일체제불이 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잘나에 들고 잘나에 나십니다. 왜 보이는 물 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50%에 매달려서 그렇게 허덕입니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작용을 하고 돌아가는 100%의 한세상을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신계의 50%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 돌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점점 발전력과 창조력이 약해질 겁니다. 과학이 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의사, 박사들이 어떠한 것을 알아내서 못 고치는 병들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지 완전히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병만 고

치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고를 호소하면 그 병고를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고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병고만이 아니라 애고라든가 모든 걸 말합니다. 만약에 의사, 박사들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해서 불치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병고의 착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돼서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그 병이 온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부 하시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안 들었다고 해서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을 놔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지를 한 줄

나에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가고 움직이지 않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과거의 속명을 아주 꿰뚫듯이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또는 타심을, 명백히 남의 속을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하나 켜려면 초, 심지, 성냥, 켜는 사람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에서 천차만별의 법이 들고 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되 절대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자기 자성 부(父)를 만날 것입니다. 자(子)와 자성 부가 같이 상봉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래서 이름해서 평등공법이요 수레공법이요 활공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시면서 일러 주신 이 길을 똑바로 아시고 똑바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업이 있다 하더라도, 망상이 수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병고가 생겼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다 제자리에다 되돌려 놓는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정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 목은 빛도 밝고 햇빛도 줄 수 있고, 나를 발견해서 이 세상 우주 삼라대 천세계를 끝이 다 볼 수 있는가 하면 알 수도 있고, 가고 움직이지 않고 올 수 있고, 멀고 가까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거를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하셨던 것은, 우리가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줄 수 없고 자기가 목마르는데 먹을 수 없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찾아와서 어디가 어머니 어디가 어머니 이럴 때에 나는 내 대답을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합니다. 그냥 그대로 말을 하고 가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양쪽의 전전질과 같으니까, 부처님 법에 의해서 전전질이 딱 붙게 됩니다. 사람이 전전질을 갖다가 붙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통하면 그냥 와서 찢겨 붙게 돼서 하나로 되면서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 들어왔을 뿐이지 양쪽의 전전질은 내가 했으니 네가 했으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 줬다, 내가 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한마디도 한 예가 없고 내가 마음을 낸 예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 나다. 내가 이만치 배웠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높다 낮다, 이게 정법이고 저

26면으로 계속

사과문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상운 법하

대한불교조계종의 홈페이지 개제물 변경요구 및 사과요구건에 대하여 본종단 홈페이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홈페이지 내용과 대다수 같다는 지적을 확인한 결과 같다는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식으로 사과와 글을 올림과 아울러

1. 비슷한 홈페이지 내용등을 즉시 시정할 것입니다.
2. 10월 30일 까지 정정요구를 검허히 받아들여 진행하겠습니다.

대한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행 법혜

대각사 불교명상대학 2기생 모집

불교명상 위빠사나 전문수행처에서 참나를 찾는 처방전 금강경(저자직강)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자유인이 되십시오

◆ 입학식 : 2010년 12월 12일(일) 10:00
매주 화, 목요일 (12월 16일 첫강의)

오전반 : 오전 10:30 - 12:30
저녁반 : 오후 7:30 - 9:30
정원 : 30명(선착순)
장소 : 대각사 선방

◆ 교과목
화요참선 : 위빠사나 참선, 마음챙김 요가
목요강좌 : 깨달음으로 가는 金剛經 (베스트셀러)
매주 첫 일요일 : 108참회순례 (3회)

◆ 등록비 : 100,000원 (3개월 과정)
입금계좌 : 농협 301-0055-8505-71 대각사

◆ 문의전화 : 053)6565-108
※ 등록자에 한해서 수행교재 교부함

大覺寺 불교명상대학장 합장

대구 남구 대명3동 336-1(앞산네거리 현충로역 3번출구)

공수맥 · 풍수

세계 최초 신개념 open course

새로운 개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간은 별로부터 생겨남...다시 우주와의 연결을 위해” 새로운 개념, 새로운 차원의 수맥과 풍수교실

■ 공풍수/공수맥 교실의 개설목적

- ◎ 풍수에서 바람은 상리만상의 질서를 주도록,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바람과 물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풍수지리 이론은 시간공간에 대한 한계적으로 자연계의 숨겨진 힘과 운을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 ◎ 사막 한가운데 정체를 우백호도 없이 하늘 기운을 연결하여 우유를 짜지 않게 하는 피라미트, 인류의 유산인 세계의 거석문화, 영국의 스톤헨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암각화와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한반도의 고인돌들과 우주의 에너지는 어떻게 인간의 삶에 풍수적 조화를 이루는가?
- ◎ 사신사(四神砂) 개념의 풍수가 아닌 사신도(四神圖) 개념의 우리 조상 고유의 풍수법을 이해하면 고대인이 건설한 수많은 유적의 비밀과 하늘기운 운용법을 활용하여 지혜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교육내용과 일시

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기초반	10.11.20(토) 오후2시/12주	물질검사법과 지하수맥 체크
중급반	11.03.19(토) 오후2시/12주	지상수맥과 공풍수
상급반	11.06.18(토) 오후2시/12주	* 공풍수와 별기운 연결

* ‘공’이란 물이나 자연계의 물질들이 에너지를 서로 통조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 교육참가 안내

오리엔테이션 “공수맥과 공풍수”(2시간)

일시 : 2010년 11월 13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강동구 길동 366-4 보광빌딩 3F <별별공공빛과마을터> (길동역 2번 출구 100m정방 수협빌딩)
교육비 : 기초반 3개월 과정 50만원
교육주관 : 환경부산하 (사)아시아태평양 지구생명환경개선협회
문의 : 02)486-7008, 070-7504-3001 / www.happyearth.me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후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도시생태 등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정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맥이 딱딱하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딱딱해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걸 되돌려놓고 지켜보세요

25면에서 계속

게 사법이다.' 이런 것을 따진다면 벌써 깨달음과는 천리만리 떨어지는 겁니다. 풀 한 포기나 나 아님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어느 거 하나 내 스승 아닌 게 없고 내 아님 아닌 것도 없는데 어찌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나중이다, 이것이 틀렸다 그것이 잘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수와 돈도 없다. 돌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선과 교가 돌이 아니다. 넓게 본다면 이 모두가 돌이 아닌 까닭을 알 것이다. 수억겁을 거쳐 진화되면서 찰나에 화해서 자꾸자꾸,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듯이 이렇게 거쳐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 것 같으면 네 자식 내 자식 내 부모 내 부모 이렇게 따질 것도 없다.' 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요 앞의 것만 생각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갈 수는 없죠. 절대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은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은 자기같이 살라고 하고... 그제 전부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가 모두 팔만대장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좌선이 다 입선이다 외선이다 행선이다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선입니다. 좌선을 하는 것만 참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척 잘못된 일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선은 끊어지니까요.

하여튼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앉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스님 여러분과 동석하게 되었는데 미처한 나를 이렇게 잘 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여기 선이 불자는 한마음선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약 일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늦게나마 큰스님의 법을 듣고 공부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쭙고 싶지만 다음 질문자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생과사가 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바로 알고 있는지 큰스님께서 들으시고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 오면서 '한

마음은 온 우주를 감싸고도 남으며 부처님의 진리의 옹광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생들은 몸에 중생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뭇십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생심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 중생심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나 분별심에 의한 착을 한마음 자리에 되돌려 놓고, 억겁을 쌓아 온 선업 악업도 다 제자리에 돌려놓아서 지혜가 자꾸 밝아지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해탈한다. 소위 중생이 해탈한다는 그것이 곧 부처 자리에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진리에서는 태어남과 죽을 즉, 생멸이 없는 길로 저는 이해를 하고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과 간혹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나서 살아간다는 건 곧 죽어 가는 거니까, 생과 사를 합해 가지고 시공을 초월했을 때 하나의 찰나니까 이것이 생사가 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자가 맞다면, 생멸이 없다는 그 자체는 열반경지에 가진 분만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저희 중생들이 마음으로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서울에서, 즉 시발점에서 차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을 왔는데, 종점에서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종점이 아니라 또 시발점이 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종점과 시발점이 돌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그냥 일본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가 그냥 있어야만 죽는 것인데, 부산에 왔다가 도로 타고 도로 가야 되고요, 갔으면 또 와야 되고 왔으면 또 가야 되고, 이러니 살아나온 것이 따로 있습니까? 또 죽어갈 것이 따로 있습니까?

질문자1(남): 생과 사가 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고 죽고 또 가고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남과 죽음은 열반경지에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큰스님: 방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늙어 죽어야 가고 오고 이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정신계와 물질계

를 한 찰나에도 들고 한 찰나에도 나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돌이 아니게 그냥 그대로 한 찰나에 나고 한 찰나에 들고 이러시기 때문에, 아예 죽고 사는 생사를 벗어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자기가 뭇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게 아니라 본래 있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을 해야 생사가 돌이 아닌지 어떤지를 알게 되지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오늘 이 좋은 날 주옥 같은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질문까지 하게 되어 본인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법무아(諸法無我)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공(一切皆空) 열반적정(涅槃寂靜)! 오늘이 KBS홀에 만장하신 여러분께서는 일체의 고해를 넘어서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제자리에다 되돌려 놓는 수행을 하십시오

서 열반의 경지까지 가도록 수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음 주인공과 해탈을 해서 열반하는 그 수행과 돌이 아니고 하나라는 도리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원자에서 입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한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할 수도 없는 것을 다 포함하고, 이 우주 전체를 다 싸안으라 해도 싸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혼자자 아니라 전체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산소를 저장했다가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내주듯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생·공유·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일체가 다 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귀합이 돼서 나 너가 없이 돌아가는 것을, 즉 말하자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냐.' 하는 거와 똑같이 '주인공' 하면 이쯤해서 주인공이지 없는 것을 뜻합니다.

풍 누러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풍을 누죠? '풍을 뉘야 하나, 안 뉘야 하나.' 이런 생각이 없이 풍마려우면 그냥 변소에 가서 풍 누듯이, 그냥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 거기에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수행에 있어서 참단의 길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못하든 잘하든 자기네들이 하고 있지 딴 사람이 해 줘니까? 안 그렇습니까? 못하든 잘하든, 망하든 흥하든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한 거를 '이 몸뚱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인의 심부름꾼이 한 게 아니라, 이 심부름꾼은 심부름만 했지 주인이 한 거로구나.' 하고 거기가다 맡겨 놓으십시오. 주인과 심부름꾼이 돌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되맡겨 놓으면 벌써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해지고, 잘못 돼 나가던 애들이 벌써 유순해지고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또는 애들이 잘못 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실천으로 나옵니다. '우리 생활이 참선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그대로 거기가다 맡겨 놓고, 되맡겨 놓고 지켜 보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선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다 맡겨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걸 되맡겨 놓고 지켜보는데, 잘되는 건 감사하게 되맡겨 놓고 안되는 건 '안되는 것도 거기가 나온 거니까 되맡겨 놓으시오.' 하는 믿음으로 거기가다 되맡겨 놓으시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극한적인 괴로움은 벗어날 겁니다.

질문자2(남): 잘 알았습니다.

질문자3(남): 이렇게 친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탐진치 삼독과 번뇌 망상심, 이런 도리는 제가 알겠는데요, 병고의 문제에 대해 조금 전에 스님께서 "그 모든 병고가 공부거리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감이라고 하기에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고에 대한 이치를 조금 더 말씀을 주십시오.

큰스님: 여러분이 그렇게 모습으로 보고 모

습으로 생각을 하니가 그렇지 체가 없는 마음 자리로 본다면 그게 아닙니다. 어떠한 병고도 닥치더라도, 즉 말하자면 하늘이 무너지고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태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않고 뭘 믿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또는 이름을 믿겠습니까, 스님들의 고깃머리를 믿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먹을 믿듯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를 믿어야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수억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십시오. 죽어도 거기로 살아도 거기가,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거기를 믿고 거기가다 맡겨 놓으세요. 믿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만을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 사는 걸 다 놓을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맡겨 놓으신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자기 소망대로 될 것입니다.

질문자3(남):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사주나 관상이나 미래학을 볼 때에 흔히들 생년월일과 시(時)를 넣어 줘야 그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직접 가 보진 않았습니까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행한 업이 생명의 시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꼭 생년월일, 시를 넣어야 그게 나오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시를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름을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도리가 바로 부처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가 되맡겨 놓으라고요. 뭐, 이사 날짜가 나빠서 어떻게, 삼재가 들어서 뭐가 어떠저떠니 하면서 죽을까 봐 겁내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에 놓으세요. 또 한편으로 볼 때, 내가 이날 이사 간다 했으면 그 날이 좋은 날이예요. 그리고 삼재가 들어서 뭐가 어머니 뭐가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니가 그게 입력이 돼서 꼭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도록 마음을 잘 쓰시라 이겁니다.

질문자3(남):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2년 10월 1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황금의 불탑 미얀마!!!

미얀마를 알고 계십니까?
걱정 마세요. 미얀마 성지순례는 안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성지순례!!!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베트]